

이재명 “무능폭력정권 국민항쟁… 무기한 단식 투쟁”

민주당 대표 취임 1주년 기자회견담회… “퇴행적 집권 못막은 책임 막중” 대통령 대국민 사과·국정 쇄신·개각 요구… 당무·검찰 조사 병행 방침

검찰 소환 조사를 앞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1일 오후 윤석열 정부에 대한 ‘국민항쟁’을 선포하면서 무기한 단식 투쟁에 돌입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자신을 향한 검찰 수사를 지연시키기 위한 ‘방탄 단식’에 불과하다고 맹비난, 정국회에서의 여야의 격돌을 예고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후 1시부터 국회 본관 앞에 설치한 천막에서 단식 투쟁에 들어갔다. 천막에는 ‘무너지는 민주주의 다시 세우겠습니다’라는 현수막이 걸렸다. 이 대표는 흰 셔츠에 노 타이 차림으로 탁자 앞에서 단식을 시작했다. 박광은 원내대표를 비롯해 조정식 사무총장, 최고위원 등 지도부가 함께 했다.

이후 앞서 이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당 대표 취임 1주년 기자회견담회에서 “사족생의 각오로 민주주의 파괴를 막아내겠다”며 “마지막 수단으로 오늘부터 무기한 단식을 시작한다”고 선언했다. 그는 “대한민국이, 국민의 삶이 이렇게 무너진 데는 저의 책임이 가장 크다”며 “퇴행적 집권을 막지 못했고, 정권의 무능과 폭주를 막지 못했다. 그 책임을 조금이나마 져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단식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정권은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위협하고 해양주권을 침해하는 일본의 핵폐수 투기 테러에도 저항하기는 커녕 오히려 맞장구치며 공범이 됐다”며 “먹고 사는 것도 어려운데 이념전쟁으로 국민을 갈라치기하고 심각한 권력사유화과 국정농단으로 나라가 위태롭다”고도 평가했다. 이 대표는 “정권의 언론 탄압에, 정권의 국민 편 가르기에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다”며 “국민을 무시하고 적대시하는 나라, 역사를 부정하고 국민을 갈라치기하는 정권, 이게 나라인가?”라고 되물기도 했다.

이 대표는 “이 순간부터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무능폭력정권을 향해 ‘국민항쟁’을 시작하겠다”며 “대통령은 민생파괴, 민주주의 훼손에 대하여 국민께 사죄하고 전면적인 국정쇄신과 개각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단식 투쟁과 함께 당무 및 검찰 조사 등도 병행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단식을 한다고 해서 일을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검찰 수사 역시 전혀 지장 받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날 이재명 대표

의 ‘무기한 단식 선언’에 대해 “민생을 쟁기고 국민의 삶을 몰락시키는 정국회 개최를 앞두고 웬 뜬금포 단식인지 모르겠다”고 맹비난했다.

김 대표는 이날 순천에서의 현장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한 뒤 “제1야당 당 대표가, 그것도 거대 야당을 이끌고 있으면서 직무유기를 하겠다는 것에 다름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기 사법 리스크가 두렵고 체포동의안 처리가 두려우면 그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면 되는데 왜 자꾸 민생 발목잡기를 하는 지 참 답답하다”라고도 꼬집었다.

강민국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대체 무엇을 위한 단식인가. 결국 자신을 향한 법의 심판이 다가오니 어떻게든 관심을 돌려보기 위해 가장 치졸한 방법을 선택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제1야당 대표가 되지도 않는 핑계로 단식에 나선다고 하니 황당함을 넘어 분노가 치민다”며 “제다가 오늘 정국회를 단 하루 앞둔 날이다. 산적한 현안과 법안, 그리고 예산심사를 앞둔 마당에 제1야당 대표가 이렇듯 무책임한 발상을 하고 있으니 국민들 역량이 무너진다”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 측에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무기한 단식 투쟁과 관련, 일체의 고려 없이 수사 상황에 맞게 수사를 진행해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사족생으로 민주주의 파괴 막겠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1일 국회 앞에서 단식 농성을 하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취임 1주년 기자회견담회에서 “무능 폭력 정권을 향해 국민항쟁을 시작하겠다”며 무기한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연합뉴스

국힘 지도부, 순천서 현장 최고위

순천만정원박람회 흥행 극찬… “일 잘하는 지자체 더 지원”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지난 31일 “여당과 정부는 일 잘하는 지자체에 대해선 인센티브 차원에서 더 많은 지원이 있도록 챙겨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순천에서 ‘순천만 국제 정원박람회’를 둘러본 뒤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이 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개장 이후 반년도 되지 않은 기간에 벌써 600만명 넘는 관광객이 박람회를 찾았다고 한다. 가히 초대박 흥행이 아닐 수 없다”고 극찬했다.

그러면서 “중소도시 한 곳의 인구와 맞먹는 20만명에 달하는 관광객이 하루에 몰려도 교통체증을 거의 느낄 수 없다고 한다”며 “노관급 순천시장

을 비롯해 시청, 도청, 조직위 관계자들의 철저한 준비가 있었기 때문일 것”이라고 했다.

김 대표는 “일 잘하는 지자체와 일 잘 못하는 지자체 사이에 차이가 있어야 주민의 삶이 선택해지고, 지방자치제도가 발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의 발언은 준비 부족과 미숙한 운영으로 파행을 빚은 전북 부안의 ‘새만금 썰매리’ 사태와 대비시켜 국제 행사를 치르는 지자체의 책임을 부각하는 의미로 해석된다.

김 대표는 “요즘 호남지역 인사들 중 상당수가 ‘1당(민주당) 장기독점이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한다”며 “지금의 민주당은 DJ(김대중 전 대통령) 정신을 계승한 정당으로 볼 수 없

다”고 지적했다. 이어 호남 인사들이 자신에게 “호남의 민주화 정신은 특정 정당의 전유물이 아니다”, “호남이 정말 필요로 하는 것은 경제 발전”이라는 의견을 개진했다고 전했다.

김 대표는 “당 대표 취임 이후부터 호남에 매일 한두차례 이상씩 내려온다”고 소개하면서 “이제 고향 같은 편안함도 느껴진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광주시가 추진하는 정율성 역사공원 건립 사업에 대해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광주에서 언론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정율성은 중공군, 북한군과 함께한 사람”이라며 “정율성 역사공원을 건립한다는 게 이상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중공군, 북한군과 함께한 사람을 추념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진정한 ‘광주 정신’ 아니냐”면서 “정율성 역사공원 건립은 지자체가 알아서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이태원 참사 특별법’ 野 단독 처리

특조위 구성, 피해 배·보상 등 담아… 與, 반발 퇴장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31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태원 참사 특별법’(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법안에는 독립적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구성과 특별검사(특검) 수사가 필요할 경우 특검 임명을 위한 국회 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는 점을 규정하는 한편, 피해 배·보상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조위는 국회의장 추천 1명, 여야 추천 각각 4

명, 유가족 단체 추천 2명 등 총 11명으로 구성되도록 했다.

이 법안은 전날 행안위 안전조정위원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통과돼 전체회의에 넘겨졌다.

여당은 이날 회의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전체회의의 일정에 합의하지 않겠다는 점, 특조위가 편파적으로 구성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법안 처리에 반대했다.

의원들의 의사진행 발언이 시작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일제히 퇴장했고, 야당 의원들만 남은 채 법안은 가결됐다. /오광록 기자 kroh@연합뉴스

여의도 브리핑

이형석 “정율성 역사공원 이념전쟁화 말아야”

더불어민주당 이형석(북구) 국회의원은 지난 31일 자정까지 이어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회에서 “정율성 역사공원 사업을 이념 전쟁의 장에 끌어들이려 광주를 분열시키지 말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정율성 기념사업은 노태우·김영삼·박근혜 등 보수정부에서 한중우호에 기여를 하는 것으로 판단해 추진됐고 지난 2008년부터 4년 동안 4억원이 넘는 국비 지원도 받았다”면서 “광주시는 그 취지를 이어받아 기념사업을 시작했으며, 정율성 역사공원 사업도 같은 맥락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역사공원은 정율성의 공산당 전력을 찬양하려는 의도가 결코 없으며, 생가 및 주변시설을 정비하고 정율성의 음악성을 고찰하려는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라며 덧붙였다. 또 “중앙일간지에 정율성 역사공원 건립 반대



광고가 게재되기 3일 전 보훈부 직원과 5·18단체 관계자가 광주의 한 호텔에서 회동했고 5·18 공법단체 2곳이 해당 광고에 이름을 올렸다”면서 “보훈부가 역사공원 건립 반대여론을 확산시키기 위해 은밀하게 나선 것”이라고 직격했다.

이 의원은 “1980년 5월 공권력 부재 상황에서도 ‘북괴는 오판말라’는 플래카드를 내걸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한 광주시민들은 정율성이라는 인물의 공과 과를 판별할 수 있는 자정 능력을 갖추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는 정율성 역사공원에 반공 이데올로기 프레임은 씌울 것이 아니라 광주시에 사업 추진을 맡기고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광록 기자 kroh@

못 받은 돈 회수

※ 1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못받으신 건도 가능합니다!
특수채권 담당자 전문 추심합니다.
25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전세보증금, 경매건 및 미배당채권, 상속채권 전문 회수
- 채무자(신용)재산조사만 의뢰 가능
- 법인공사대금, 각종 외상 미수금 회수 전문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당

중앙신용정보 직통전화 062)521-4109
010-2785-0073

주목성 뛰어나 단시간내 최대의 광고효과 1일 150회, 월 4500회 송출

국내 최고 고화질 LED플라카라 최고화질

- 광주의 중심, 아시아문화전당지역 최대의 유동인구 밀집지역
-옛전남도청 앞, 금융가, 관공서, 아파트, 상가 밀집, 주목률 최고!
- 문화전당지구, 문화광장 이벤트지역 인구 집중
-광주동구 문화전당 중앙부에 위치하며 통행량 및 이동의 중심에 위치
-아시아문화전당 앞 출장로 입구 공인 이벤트 등으로 인구 유입 최대
- 높은 광고효과
-문화전당, 구도심, 아시아문화전당, 금융가, 광주광역시 최고 중심지로 이동차량 및 이동인구가 가장 많은 곳
-평일 출·퇴근 및 주말에 인구 유입되고 문화를 접목한 이벤트 풍성하여 광고 노출의 극대화
- 국내외 및 관광객 유입으로 인한 광고효과
-아시아문화전당 중심지로 국내·외 외국인 관광객들이 이동하는 최적의 장소
- LED전광판의 특징
-반복표출을 통한 메시지 전달의 극대화, 광고주의 필요에 따라 표출 내용의 신속한 변경

광고문의. 062)220-0531